

투데이 칼럼

좋은 의원은 좋은 유권자가 만든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인 정치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투표를 선택되어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대표자이자 봉사자다.

그렇다면 주민이 바라는 의원의 모습은 무엇이며, 의원은 주민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지방정치 발전의 방향이 담겨 있다.

먼저 주민이 바라는 의원의 모습은 분명하다. 선거 때의 약속을 지키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 공직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의원, 그리고 주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책임 있는 대표다.

의원의 말과 행동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하는 공적 언어다. 의회의 질문과 토론은 주민의 궁금증을 대신 묻는 과정이며, 정책 결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그러나 비판과 감시는 단순한



정 상 섭 전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견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과 공정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보다 개인적 친분이나 연고 관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보다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평소 알고 지

낸 사람이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둘째, 행사 참석이나 개인적 민원 해결 여부가 의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정치가 공공정책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관계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지역 발전 전략보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투표 문화가 지속되면 지방정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인간관계 중심의 정치로 흐르기 쉽다. 결국 정책 역량보다 인맥 관리에 능한 정치인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지방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된다.

지방자치의 수준은 결국 유권자의 선택 수준, 즉 민도의 수준과 맞닿아 있다. 주민들이 의원을 평가할 때 개인적 친소 관계가 아니라 정책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주민들도 의원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원이 모든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변했다고 평가하기보다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시각이 필요하다.

행사 참석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 역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선진 지역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성을 높이며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풀이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지방정치는 주민과 의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정이다. 주민이 성숙한 선택을 하고 의원이 다시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지방 자치의 미래는 결국 주민의 선택과 의원의 책임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사설

완주전주 110경

전주와 완주는 원래 한 고장이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 땅이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 땅이었으며 완산이라고 불렀다. 신라시대에도 완산주라고 불렀다.

전주와 완주 일대에는 완산승경(完山勝景), 전주팔경(全州八景), 전주십경(全州十景)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승경(勝景)이 있다.

승경(勝景)은 모두 110여 개에 이른다. 정복규 기자가 발로 뛰어 추가로 발굴한 것도 많다. 현재 '시사전북' 월간 잡지에 매월 2개씩 5페이지에 걸쳐 3년째 연재하고 있다.

승경(勝景)이란 '뛰어나게 좋은 경치'를 말한다. 경(景)은 <경치>이다. 그러나 역사성이 있는

지역도 상당수 들어있다. 승경(勝景) 가운데 전주에는 가련산, 간담대, 견지산, 초록비위산, 기린봉, 남고사, 잠주천, 다가공원, 천양정, 덕진공원, 동고사, 화안대군 묘소, 보광사, 삼천동의 가랑비, 오목대, 완산칠봉, 유연대, 은석골, 진북사, 한벽루, 황방산, 경기전, 잠주향교, 객사, 남고산성, 만경루, 조경단, 치명자산, 풍남문, 학인당, 희현당 등이 해당된다.

완주에는 경각산, 고달산, 구진별, 단암사, 대둔산, 대아저수지, 삼례 한내천, 봉동 동포, 만파관, 모악산, 비비정, 사대원, 운재골백련, 위봉폭포, 죽림마을, 송광사, 천호성지 등이다. 구진용마, 만파도관, 사대별양, 운재백련, 은석동학, 죽림천엽 등은 옛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영화 '왕과 시는 남자'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단종의 뒷이야기를 담은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시는 남자'가 개봉한 달 만에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관이 OTT에 밀려 고전하는 시기에, 역대 25번째 1천만 한국 영화가 나온 것이다.

2024년 '과포와 범죄도시' 이후, 끊겼던 천만 영화의 맥을 이었다. 자극적 소재가 아닌 한국적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천만 코드'로 통한 것이다.

가장 위험한 건 자칫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강도해도 지나치지 않는 음주운전, 그리고 방조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왕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면 했던 그 자키러는 사람들의 어떤 소중한 충절, 마음, 우정 이런 것들에 포인트가 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마지막 몸부림, 상상 속 역사는 현실과 닮은 꼴이었다. 그 서사의 힘에 더해진 배우들의 호연은 실에 이어 3.1절 연휴까지 관객들을 스크린 앞으로 불러 모았다.

급성질환 OTT에 밀려 고전하던 영화계는, '왕과 시는 남자'의 천만 흥행에 모처럼 고무된 분위기다. 요즘은 한 작품 한 작품이 정말 중요하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해주고, 영화계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태블릿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혼자 영화 보는 게 일상이 되고 있다.

사내 · 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많이 보게 된다. 목숨을 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이 마신 음주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마신 양보다 적게 마셨다고 생각하거나 운전이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마셨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마신 술의 양과 관계없이 음주 후 핸들을 잡는 행위는 목숨을 담보로 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집에 잠깐 갔다

음주운전과 방조행위의 위험성

오래다고 하자 자신의 자동차열쇠를 빌려줬다.

후배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무심코 자동차열쇠를 빌려준 선배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약식 기소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운전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술 취한 일행에게 자동차열쇠를 건네주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방조범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신체에 알코올이 흡수되면 안전운전을 위한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두뇌 작용이 느려져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잘못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실제보다 운전을 잘한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켜 더 위험한 운전을 하게 만든다.

또한 눈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신의 주행 속도와 다른 차량의 속도 및 다른 자동차, 보행자, 장애물 등을 관

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핸들 조작과 동시에 교통신호를 보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등 운전에만 드시 필요한 동시다발적인 행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장 위험한 건 자칫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강도해도 지나치지 않는 음주운전, 그리고 방조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진제 원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a quote from the newspaper and a call to action for subscriptions.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